

한화, 태양광 · 건축자재 일본 지원

한화그룹은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을 돕기 위해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컵라면, 건축자재 등 10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한다고 3월24일 밝혔다.

한화는 지진으로 전력망이 파괴된 Aomori, Iwate, Miyagi, Hukushima 등의 8개 초등학교에 5억5000만원(약 4000만엔)을 들여 한화솔라윈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공급할 계획이다.

또 현재 이재민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 중 하나인 컵라면 15만2000개도 전달하고, 주택 복구에 필요한 바닥재 등 건축자재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11/03/24>